

#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적 언어 오류 분석

- 학습자 말뭉치와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중심으로 -

홍혜란\*

##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오류 분석의 대상 및 기준
- IV. 문법적 언어 오류의 유형
- V. 결론

## I. 서론

본고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내용학 연구의 일환으로 의사소통적 문법 교수의 관점에서 어휘접근적 문형표현<sup>1)</sup>의 하나인 문법적 언어 사용에 나타난 오류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문법 교수 방안을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성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문법은 인지체계 안에 구조화되어 있는 모국어 지식을 목표어 학습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쉽게 목표어 습득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

\* 경희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1)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범주접근적 문법항목'과 '어휘접근적 문형표현'은 강현화(2007)에서 원용한 용어이다. 강현화(2006)는 한국어 문법 항목을 범주접근적 문법항목과 어휘접근적 문형표현으로 구분한 바 있는데, 범주접근적 문법항목이란 국어학에서 접근하는 문법 범주에 따른 필수 문법 항목(시제, 존대, 문장종결법, 인용, 부정, 피동, 사동 등)을 의미하며, 어휘접근적 표현문형이란 고정적이고 상투적으로 사용되는 문법적 표현 단위로 하나의 어휘처럼 기능하는 문법 표현을 의미한다.

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습 영역이다. 한편, 목표어 사용 환경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언어습득이 불가능한 성인 학습자에게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사용 규칙과 의미, 사용 맥락, 담화 기능에 관한 정보를 인지체계 속에 내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교수 영역이기도 하다.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단일 어휘소, 어휘적 언어, 관용표현, 속담 등의 어휘 기능 항목과 조사, 어미와 같은 범주접근적 문법항목, 특정 동사의 격틀구조를 보여주는 문형 외에 자체가 하나의 담화기능을 가지며 한국어 모어 화자 사이에서 상투적으로 사용되는 문장, 그리고 어휘-문법의 복합 구성을 이루며 두 요소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어휘접근적 문형표현 등 복합적인 요소가 주요 학습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중·고급 단계로 갈수록 어휘접근적 문형표현의 제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sup>2)</sup>, 이는 덩어리표현(chunk) 단위인 어휘접근적 문형표현이 분석적 단위인 범주접근적 문법항목보다 언어습득 측면에서 유용한 언어사용 단위임을 고려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수 현장에서의 문법교육은 학습자의 언어사용과 습득의 용이성을 고려한 어휘접근적 문형표현을 주요 문법 항목으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앞서 언급한 서로 다른 층위의 학습 항목들이 가지는 언어학적 특성과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위계화의 과정 없이 과제활동 수행에 필요한 개별 학습 항목의 의미기능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개별 항목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보다 큰 한국어 구조체계 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부합한 형태와 의미로 조직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그것은 다양한 유형의 오류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오류 연구들은 주로 학습자의 모어와 한국어의 구조적 차이 또는 학습자의 학습 부족 등에서 오류의 원인을 찾고자 한 경향이 있었다. 또한 국어학적 문법 범주 체계에 따른 본질적 단위로 오류를 분석함으로써 교수 현장에서 주요 제시 단위가 되고 있는 어휘접근적 문형표현과 관련된 오류의 특성을 보여주지 못

2) 이미혜(2002)는 이들 항목을 '표현항목'으로 명명하고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교재를 대상으로 전체 문법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단계는 13.4%, 2단계는 32%, 3단계는 41.9%, 4단계는 56.9%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항목이 문법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미혜(2002)의 연구에서는 그 대상이 1~4단계로 고급 단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경희대학교의 한국어 초·중·고급 교재 6권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의 분석을 해 보았는데,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급 단계에서도 이들 항목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초급 I	초급 II	중급 I	중급 II	고급 I	고급 II
0%	20.5%	44%	45%	41%	57%

했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 구조 체계 안에서 어휘적접근적 표현문형인 문법적 언어 오류를 살피고 한국어 문법 체계와 학습자 오류 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하여 고민해 봄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법 교수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인 어휘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본고의 연구 대상인 문법적 언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범주를 설정하였다. 3장에서는 본격적인 오류 분석에 앞서 연구 대상과 분석 기준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4장에서는 문법적 언어 오류를 오류 원인과 표면 전략에 따라 세분화한 후 학습자의 언어 사용 체계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본고는 의사소통적 문법 교수의 관점에서 어휘와 문법, 두 요소가 가지는 상호 관련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관점의 오류 연구로 향후 문법교육과 어휘교육의 통합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보다 궁극적으로 어휘접근적 문형표현을 활용한 문법 교수의 효용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 II. 이론적 배경

### II.1. 어휘적 접근법

기존의 언어 교수에서 문법과 어휘는 문장 생성에 필요한 도구적 요소로서 적법한 문장 생성을 위한 틀(기능적 요소)과 그 틀의 빈칸(slot)을 채워주는 내용적 요소로 구분되어 왔다. 그 결과 문법교육은 주로 규칙을 제시하고 규칙을 활용한 정확한 문장을 생성하는 것에 초점이 주어져 왔고, 어휘교육은 문법교육의 보조적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코퍼스 기반의 언어 연구가 확산되면서 목표어 모어 화자들의 언어 사용에 고빈도로 나타나는 문법 요소와 어휘 요소의 관습적 결합 형태인 어휘-문법 단위에 주목하면서 두 요소가 형태론과 통사론의 양 끝에 위치한 분절적 요소라는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Lewis(1993)의 어휘적 접근법(The Lexical Approach)은 이러한 맥락에서 문법이 의사소통능력의 근간을 이룬다는 견해를 부정한 새로운 방식의 언어 교수학습 이론이다. 언어를 어휘화된 문법이 아니라 문법화된 어휘의 구성으로 보았으며, 대다수의 언어가 덩어리 표현(chunk)으로 나타므로 문법과 어휘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

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문법과 어휘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고자 한 것으로 학습자들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언어 교수의 핵심이 학습자들에게 덩어리 표현을 인식하도록 하고, 스스로 덩어리화(chunking)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문법이 어휘 구조에 종속되는 것으로 이것은 의사소통능력의 핵심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Lewis(1993)가 어휘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한 어휘 교육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 반면, Sinclair(1988), Nattinger & DeCarrico(1992), Skehan(1992), Dave Willis(2003) 등은 보다 다양한 덩어리 표현을 포괄하는 어휘구(lexical phrases)의 교육적 효용성에 주목한 논의를 이끌어냈다. 어휘구는 '각각의 덩어리를 독립적으로 짜 맞추기 없이' 배열할 수 있는 항목으로 '만들어진 요소이며 덩어리(ready-made elements and chunks)' (Skehan, 1992; Dave Willis, 2003 재인용), 조각들로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단일한 선택에 의해 반쯤 미리 조립된 구(semi-preconstructed phrases)이다(Sinclair, 1988; Dave Willis, 2003 재인용). 또는 형태와 기능의 혼합 요소, 즉 전통적인 어휘론과 통사론 사이의 어딘가에 위치한 어휘-문법적 요소를 말한다(Nattinger & DeCarrico, 1992). 어휘구는 구성요소간의 결합 빈도와 형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능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학자에 따라 명칭이나 구체적인 범주 구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어휘적 속성을 가지며 학습자들의 실제적 의사소통을 돕는 언어 사용 단위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이들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휘 요소와 문법요소의 복합 구성으로 이루어진 문법 항목들을 통어적 구문(백봉자, 1999), 관용표현(이희자·이종희, 1999), 관용구문(김정은·이소영, 2001), 통어적 구성(방성원, 2004), 통어적 문법소(노지니, 2003), 표현항목(이미혜, 2002), 어휘접근적 문형(강현화, 2006; 2007) 등으로 지칭하고, 그러한 항목들이 가진 어휘-문법적 특성을 토대로 한 새로운 문법 체계의 정립과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서의 문법 교수 방안 모색을 주요한 논의들이 그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은 그 시작이 어휘 교육에 있었으나 의사소통적 언어사용 단위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그 경계가 무의미하며, 문법과 어휘, 두 요소가 가진 상호 관련성을 바탕으로 어휘교육과 문법교육의 통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적 한국어 문법 교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II.2. 문법적 연어의 개념 정의

연어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어휘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연어란 ‘말뭉치에서 하나의 어휘 항목은 다른 몇 개의 어휘 항목과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러한 어휘 항목의 긴밀하고 고정적인 공기 관계’를 말한다(강현화, 1998). 또는 ‘규칙적인 통사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어휘적 차원에서의 특별히 긴밀하고 제한적인 결합관계를 보이는 두 단어의 연쇄’(홍재성, 1995), ‘특정 어휘가 다른 어휘를 요구함으로 발생하는 어휘소들 간의 제한적 공기 관계’(김진혜, 2000)이다. 이처럼 연어에 대한 정의는 연어 관계를 이루는 결합 요소의 의미와 형태, 공기 관계의 고정성 정도, 결합 관계에 따른 의미의 예측 가능성 등에 따라 연구자마다 정의는 다르다. 그러나 ‘어휘 요소 간의 공기 관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반면, 문법적 연어란 ‘-기 때문에’, ‘-(으)ㄴ 가운데’, ‘-기 전에’, ‘-에 비해서’, ‘-(으)ㄴ 수 있다’, ‘-(으)ㄴ 것 같다’와 같이 하나 이상의 문법 형태소를 포함한 것으로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간의 공기 관계에 주목한 것이다. <표 1>은 본고의 문법적 연어에 해당하는 덩어리 표현을 정의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문법적 연어에 대한 용어 및 개념

기존 연구	용어	개념
이희자(1995)	형태적 연어	통사나 의미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고정된 어휘꼴이나 극히 제한된 활용꼴로 나타나는 어휘론적 현상으로서 설명되는 어절들의 관계
백봉자(1999)	통어적 구문	둘 이상의 문법 요소가 통사적으로 하나의 구성을 이루는 것
김진혜(2000)	형태·통사적 연어	형태적으로 제한된 형태가 통사적인 구나 절 범주를 이끄는 문법 표지와 결합하는 구성
이희자(2001)	관용구	조사와 어미가 용언, 보조 용언, 의존 명사, 준꼴 따위와 어울려 하나의 표현으로 굳어져 쓰이는 것

김정은· 이소영(2001)	관용구문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문형이란 용어로 언급되고 있는 단위로 다양한 숙어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방성원(2002)	복합 구성	기존 한국어 교재에서 학습 문법으로 제시된 문법 요소 중 정확하게 범주를 부여하기 곤란한 복합 구성
이미혜(2002)	표현 항목	한국어 교재에서 목표 문법으로 제시한 항목 중 문법적인 범주-연결어미, 종결어미, 조사 등-를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항목들로서 문법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는 덩어리 항목
임홍빈(2001)	문법적 언어	문법적으로나 어휘-통사적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불규칙적인 구성
임근석(2002)	문법적 언어	언어 구성을 이루는 중심 단위가 어휘소뿐만 아니라 문법소도 포함된 경우
노지니(2003)	통어적 문법소	형태적으로 분석 가능한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모인 집합으로서 하나의 전체로서 문법적 의미 기능을 실현하는 단위
김유미(2004)	패턴 문법	단어들의 결합이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고빈도)하고 그것이 특별한 단어 선택에 의존하여 의미가 명확한 것
최윤곤(2004)	구문표현	문법 요소(조사, 어미)와 어휘 요소(체언, 용언)가 하나의 복합 구조체를 구성하고, 구문 생성은 물론 담화 상황까지 포함하는 문법 단위
김유미(2005)	표현 문형	한국어 교재에서 목표 문법으로 제시한 항목 중 문법적인 범주 - 예를 들어 의존명사·조사·어미 등 -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항목들로서 문법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는 항목
이은경(2005a) 이은경(2005b)	문법적 언어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 사이의 제한적인 공기 관계

이희자(1995), 김진해(2000), 임근석(2002), 임홍빈(2002)은 국어학적 관점에서 문법적 연어가 문법 요소와 어휘 요소의 결합에 의한 복합 구성이고 구성 요소인 어휘 요소가 매우 제한된 형태로 결합된다는 점 주목한 논의이다. 한편, 김정은 이소영(2001), 이희자(2001), 방성원(2002), 이미혜(2002), 최윤곤(2004), 김유미(2005)는 한국어교육적 관점에서 이들 구성이 이질적인 문법 요소와 어휘 요소의 합으로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덩어리 표현이라는 것에 주목한 논의이다.

특히, 이미혜(2002)는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문법 학습 항목을 조사, 어미와 같은 ‘문법 항목’, ‘표현 항목’, ‘-기는’, ‘-(으)러다가는’과 같은 ‘단순 결합항목’으로 구분하고 이 중 ‘표현항목’을 문법적 특성에 따라 (1)과 같이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 (1) ㄱ. 의존명사 결합형: -(으)르 겸
  - ㄴ. 명사형 결합형: -(기)가 그지없다/한이 없다
  - ㄷ. 조사 결합형: -에 관하여
  - ㄹ. 연결어미 결합형: -거나 하면

이는 한국어 교육 문법에서 ‘표현항목’ 설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적극적인 시도이자 덩어리 표현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범주 구분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의존명사’, ‘명사’, ‘조사’의 언어학적 위상이 다르고, 그러한 이유로 하나의 항목이 두 개의 영역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등 분류 체계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김유미(2005)는 ‘문형’을 ‘단어들의 결합이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것이 특별한 단어 선택에 의존하며 의미가 명확한 문법 형태’로 정의하고 ‘구문 문형’과 ‘표현 문형’으로 구분하였다. (2)는 ‘표현문형’의 유형을 범주화한 것이다.

- (2) ㄱ. 의존명사/명사 중심 공기 패턴: -기 때문에
  - ㄴ. 조사 중심 공기 패턴: 마치 N처럼
  - ㄷ. 어미 중심 공기 패턴: -가 (으)르까요?
  - ㄹ. 부사 중심 공기 패턴: 그다지 -지 않다
  - ㅁ. 어미형
    - ① 단일형: -거나, -고자
    - ② 결합형: -다기에
  - ㅂ. 문장형: 어떻게 오셨어요?
  - ㅅ. 용언+보조용언 꼴: -고 있다

김유미(2005)는 한국어 문형 학습에 필요한 자동 문형 검사기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로 학습자 코퍼스 구축을 통해 학습자의 문형 사용 양상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통찰력 있게 살피고 있다. 그러나 '표현 문형'을 '문법적인 범주를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항목들로서 문법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는 항목'으로 정의하고 문법화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하위 범주에 단일 구성 또는 단순 결합 구성의 연결어미를 포함한 '어미형' 항목, 화용적 기능을 실현하는 '문장형' 구성이 혼재하는 등 개념 정의와 설명, 하위 범주 분류 체계 간의 상관관계가 적다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의 범위와 기준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용어와 개념, 범주화를 위한 분류 체계 간의 상관관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부족해 이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문법적 언어 오류 분석에 앞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법적 언어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 범주를 설정하고 그 목록을 추출하였다. (3)은 본고의 연구 대상인 문법적 언어의 개념 정리한 것이다.

- (3) 문법적 언어란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 간의 고빈도 공기 결합 구성으로 문장 안에서 하나의 어휘처럼 쓰이면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어휘-문법적 구성을 말한다.

문법적 언어의 범주 설정은 한국어 교재 8종과 한국어 문법 사전 3종<sup>3)</sup>에 제시되어 있는 학습 항목들을 구성 유형과 주요 기능에 따라 나누고, 이를 다시 범주적·접근적 문법항목과 어휘적·접근적 문형표현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각 교재가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법적 언어를 살핌과 동시에 오류 분석 과정에서 빚어질 수

3) 구체적인 분석 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다.

- ㄱ.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 『한국어』 1~6, 경희대학교 출판부
- ㄴ. 한국어 문화 연구부, 『한국어』 1~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ㄷ.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 한국어』 1A~4B, 도서출판사 하우
- ㄹ.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1~4, 문진미디어
- ㅁ.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한국어』 1~6, 생각하는 백성
- ㅂ. 성균학원,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어』 1~6,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ㅅ.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한국어』 1~6, 연세대학교 출판부
- ㅇ.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말이 트이는 한국어』 1~5,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 ㅈ.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커뮤니케이션북스
- ㅊ. 백봉자(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 ㅋ. 이희자·이종희(2001),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있는 문법적 연어 범주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연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는 그 결과 중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표 2> 문법적 연어 구성 항목

구 분		예 시
명사 중심	연결형	-(으)ㄴ/는 가운데, -(으)ㄴ/는/(으)ㄴ 경우에(는), -의 경우 에(는), -(으)ㄴ/는 마당에, -(으)ㄴ/는 반면(에), -(으)ㄴ 나 머지, -(으)ㄴ/는 탓(에), -(으)ㄴ 정도, -는 한, -는 길, - (으)ㄴ 때, -(으)ㄴ 후에, -기 전에
	종결형	-(으)ㄴ/는 감이 있다, -기 십상이다, -기(가) 일쑤이다, -(으) ㄴ/는 셈이다, -(으)ㄴ/는 모양이다
용언 중심	연결형	-(으)로 볼 때, -(으)로 보아서, -(으)ㄴ/는가 하면, -(으) 로 인하여/인한, -에 비해(서), -은/는 고사하고, -기 위해서, -에 대해서, -을/를 통해서, -에 따르면, -에 비해서, -(으)로 인해서, -에 따라서, -에 의해서, -다(가) 보니까, -(으)나 마 나, -아/어서 그런지, -(으)ㄴ/는데도 불구하고, -에 의하면
	종결형	-(으)ㄴ/는/(으)ㄴ 듯싶다, -(으)ㄴ/는/(으)ㄴ 듯하다, -(으) ㄴ/는지 모르다, -(으)ㄴ 만하다, -(으)ㄴ까 하다, -았/었으면 하다, -았/었으면 좋겠다, -고 말고요, -(으)ㄴ까 봐
의존명사 중심	연결형	-(으)ㄴ/는 데다가, -는 김에, -(으)ㄴ/는 만큼, -(시간) 만에, -(으)ㄴ 채, -(으)ㄴ 겸(해서), -(으)ㄴ 테니까, -(으)ㄴ 뿐만 아니라, -(으)ㄴ/는 셈 치고, -(으)ㄴ/는 탓에, 탓에, -는 통 에, -때문에/기 때문에
	종결형	-(그렇지 않아도) -(으)려던 참이다, -는 수가 있다, -(으)ㄴ/ 는 법이다, -(으)ㄴ 정도이다, -(으)ㄴ 줄 알다, -(으)ㄴ 줄 모 르다, -는 중이다/중이다, -(으)ㄴ 텐데, -는 데 (좋다), -는 데 (나쁘다), -(으)ㄴ 뻔하다, -(으)ㄴ 뿐이다, -(으)ㄴ 지경 이다, -(으)ㄴ 수밖에 없다, -기/게 마련이다, -면 -는 법이다, -(으)ㄴ 수 있다, -(으)ㄴ 수 없다, -(으)ㄴ 거예요, -(으)ㄴ/ 는/(으)ㄴ 것 같다

### Ⅲ. 연구 대상 및 방법

#### Ⅲ.1. 연구 대상

본고의 연구 대상은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문법적 언어 오류 중 형태·통사적 오류로 기존의 오류 분석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4) 건강에(√ 을) 위해서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sup>4)</sup>
- (5) 특히 생활\*∅(√ 을) 통해서 들었던 미신 중에서 무서운 것은 어린이들 마음에 오랫동안 있을 것이다.
- (6) 현재 사회에서는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 (7) 그렇지만 정보화가 발달해서 문제도 많아졌는(√ 많아진) 것 같아요.

기존의 연구에서 (4)는 조사 ‘을’과 ‘에’의 대치 오류, (5)는 조사 ‘을’의 생략 오류로 기술된 바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것을 문법적 언어 오류로 보았다. 즉, 조사 ‘에’와 ‘을’의 통사적 속성을 모르더라도 ‘-을 위해서’, ‘-을 통해서’를 알고 있다면 일어나지 않을 문법적 언어의 오형태 오류로 간주하였다. (6)과 (7)은 기존의 연구에서 전성어미 오류로 다루어져 온 예로 (6)은 명사형 전성 어미 ‘-기’의 대치 오류, (7)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의 생략 오류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들은 ‘기 마련이다’와 ‘ㄴ 것이다’의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문장 또는 담화 맥락과 일치되어야 할 시제를 파악하지 못해 일으킨 문법적 언어 오류로 보았다.

분석 자료는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동아시아어학과군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학습자의 시험작문 134개와 문화관광부 지원 프로젝트로 구축된 학습자 말뭉치 자료 중 2002년에 수집된 고급 학습자의 작문 576개<sup>5)</sup>로 총 710개이다.

4) 예문 (2)와 (3)은 기존의 연구와 이 연구의 견해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이기 위해 조철현(2002), 이은경(2002)에서 발췌한 것이다.

5) 학습자 말뭉치 자료는 주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5·6급 학생들의 작문 자료로 구성되며 일부 외부자료를 포함한다. 시험작문, 주제작문, 자유작문, 숙제공책, 백일장 자료로 구성되는데 이중 숙제공책과 백일장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숙제공책의 경우 수업에서 다루어진 문형의 사용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내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재나 수업 중 한 노트 필기 등을 참고하게 되기 때문에 오류 양상을 살피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백일

자료는 자기 소개, 가족, 친구, 취미 소개하기, 스트레스 해소법, 인터넷과 사람, 추천 여행지, 지구 온난화, 동성애, 방송 규제, 한국 문화, 정치, 경제 등 일상적 주제에서 한국의 사회현상 또는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고루 포함하며, 형식 또한 기행문, 감상문, 논설문, 보고서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포함하였다. 이는 다양한 주제, 다양한 장르에 나타난 문법적 언어 표현을 포괄적으로 다룸과 동시에, 특정 주제, 특정 장르의 글에서 고빈도로 쓰이는 표현이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자료량은 총 9,697문장, 91,482어절로 일본어권, 중국어권, 영어권, 러시아어권, 기타 언어권<sup>6)</sup>을 포함한 총 23개 국적의 한국어 학습자가 산출한 자료로 구성되었다.

### III.2. 분석 기준

오류 분석은 오류의 식별, 분류, 설명, 평가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Corder, 1981). 첫 번째 단계인 오류 식별 단계는 학습자가 산출한 자료로부터 오류와 비오류를 구분해내는 단계로 두 개의 개념이 서로 연결된 연속체(continuum)를 형성하고 있고(석주연·안경화, 2003), 그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정도 연구자의 주관 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다. 앞선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해 온 문법성(grammaticality)과 용인 가능성(acceptability)<sup>7)</sup> 역시 오류 여부를 식별하는 과정에서 결국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하게 된다. 더군다나 문법의 정확성보다 실제적인 언어 수행 능력과 유창성을 중시하는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그 기준을 설정한다면 그 경계는 더욱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문법성과 용인 가능성을 오류 식별의 기준으로 삼되, 오류 식별 기준의 모호함을 보완하기 위해 학습자의 학습 단계와 그에 따른 학습자의 기대 수준 및 요구

---

장 자료의 경우는 학습자의 수준을 알 수 없어 고급 학습자로 연구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이 연구의 자료로는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6)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리투아니아, 멕시코,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불가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태국, 터키, 폴란드, 프랑스 외 국적 미확인 자료 818어절을 포함한다.

7) 문법성(grammaticality)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것, 즉 의미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완성된 형식을 갖추었을 때 문법성을 가진 것으로 본다. 용인가능성(acceptability)은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문화 구조 안에서의 사회적 용인가능성을 의미한다(이정희, 2003).

를 오류 식별 기준의 또 다른 축으로 삼았다. 따라서 문맥이나 모국어 화자의 직관으로 학습자가 생산하고 있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더라도 문법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오류로 보았다. 그 밖에 세부적인 오류 분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문법적 연어를 중심으로 한 문장, 경우에 따라 전체 담화 맥락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Lennon(1991)은 오류 분석 기준으로 오류 영역(domain)과 오류 범위(extent)를 들고 있다. 이 중 오류의 영역은 오류를 명백히 만들기 위하여 문맥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언어 단위, 즉 음소, 음절, 단어, 구, 문장, 담화로 오류와 관련된 영역이 어디까지나를 말하며, 오류 범위는 문장 수정을 위해 생략, 대치, 보충, 혹은 어순 재배열을 해야 하는 언어 단위를 말한다(김유정, 2005). 이 연구에서는 음절에서 담화 전체에 이르는 다양한 언어학적 층위와 관련된 문법적 언어 오류를 폭넓게 살피기 위해 문장을 넘어선 담화 맥락을 오류영역으로 삼았다. 이는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문법적 언어 정보가 형태, 통사적 특성뿐만 아니라 의미, 더 나아가 화용적 측면까지 포괄하여야 한다는 이 연구의 기본 전제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 오류와 실수를 구분하였다. 실수란 오류와 달리 언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회적인 현상으로 특정 유형에 대한 체계성을 가지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와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문장을 산출한 학습자 자신을 제외하고는 오류와 실수를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일탈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를 오류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셋째, 오류의 수정은 학습자가 산출한 문장 구조를 최대한 살리는 최소한의 수정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문장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표현 양식과 의도를 손상하지 않음은 물론 연구자의 주관에 의한 과도한 오류 수정을 막고자 함이다.

그 다음 단계인 오류 분류와 오류 설명 단계는 체계적인 오류 분석과 결과의 해석을 위해 중요한 단계이다. 본고는 문법적 언어 오류의 유형을 살피고 그 내적 원인을 파악하여 문법적 언어를 활용한 문법 교수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고, 연구 대상인 문법적 언어가 어휘와 문법이 어우러진 통합적 형태로 기존의 연구와 언어학적 층위나 속성이 다르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오류의 외적 현상보다는 학습자에게 문법적 언어를 제시할 때 포함해야 할 내용들, 더 나아가 문법 또는 문법 교수와 관련한 일반적

인 원리를 염두에 두고 Larsen-Freeman(2001)에 따라 1차적으로 형태·통사적 오류, 의미적 오류, 화용적 오류로 나누었다<sup>8)</sup>. 그리고 본고의 논의 대상인 형태·통사적 오류만을 모아 다시 오류를 발생 원인에 따라 다시 분류한 뒤 표면 전략 유형에 따른 대치, 첨가, 누락 오류로 세분화하여 오류를 설명하였다. 여기서 대치 오류는 문법적 언어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항목과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하며, 첨가 오류는 문법적 언어의 형태적 고정성을 깨고 불필요한 문법 요소 또는 어휘 요소를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누락 오류는 문법적 언어의 구성 요소 전체 또는 일부가 빠지는 것을 말한다.

#### IV. 문법적 언어 오류의 유형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문법적 능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 중 하나는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정확한 형태로 적절한 배열 규칙에 맞추어 완결된 의미구조를 갖춘 문장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법 오류는 일반적으로 문장 구성 요소의 형태적 정확성과 함께 문장 속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규칙에 맞게 잘 반영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살피게 된다. 문법적 언어의 형태·통사적 오류는 문법적 언어 구성 요소들의 대치, 첨가, 누락으로 문법적 언어의 형태적 고정성과 통사적 결합성을 파괴거나, 문법적 언어가 가지는 통사적 제약을 어김으로써 발생한 오류를 말한다.

분석 결과 전체 9,697문장, 91,482어절의 자료에서 총 885개의<sup>9)</sup> 오류를 발견하였으며, 이 중 형태·통사적 오류는 460개로 전체 오류의 51.98%를 차지하였다. 오류의 원인과 표면 전략에 따른 형태·통사적 오류의 유형은 <표 3>과 같다.

8) Larsen-Freeman(1991)은 문법 교수에서 형태 또는 구조(form/structure: How is it formed?), 의미 또는 의미론(meaning/semantics: What does it mean?), 사용을 결정하는 화용론적(pragmatics: When/Why is it used?)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9) 문법적 언어 구성이 대개 '선행 연결어+중심어+후행 연결어'의 구조로 선행 연결어와 후행 연결어의 조사 또는 어미와 결합하는 선행 결합어와 후행 결합어를 포함하여 최소한 2,655어절이 오류 범위와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정확한 문법적 언어의 오류 빈도와 오류 발생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체 어절에 사용된 모든 문법적 언어를 추출하여 그 빈도를 계산하여야 하지만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 오류율을 보는 데 있지 않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lt;표 3&gt; 문법적 언어 오류의 유형

오류의 유형	세부 원인에 따른 오류의 유형	표면 전략 유형
형태·통사적 오류	단순 형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	대치, 첨가, 누락
	선·후행 결합어의 속성에 따른 형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	대치, 첨가
	문장 또는 담화 차원의 통사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	대치, 첨가, 누락

#### IV.1. 단순 형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

단순 형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는 표기법 규칙을 어겨 발생한 단순 철자 오류를 비롯해 문법적 언어를 구성하는 어휘 요소 또는 문법 요소의 부분적 대치, 누락으로 문법적 언어의 형태적 고정성을 파괴하거나 불필요한 요소의 결합으로 통사적 결합성을 파괴하는 오형태 오류를 말한다. 이 유형의 오류는 표면 전략에 따라 대치, 첨가, 누락 오류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 (8) 꼭 해야 한 예기만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나머지는 아이한테 맞길 수 받게 없다(√ 말길 수밖에 없다). (미국)
- (9) 일이 잘 될 때는 무겁게 느낄 수도 있지만 아내와 아이들과 마음이 통하고 있으면 그 어려움을 너머 갈 수 있는 힘이 될 거시다(√ 될 것이다). (일본)
- (10) 몇일 전에 본 뉴스에 달으면(√ 에 따르면) 어느 나라에서 인간 복제를 실시했답니다. (일본)
- (11) 그래서 한국에 때한(√ 에 대한) 관광안내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쇼핑 마사지에요. (일본)
- (12) 우리 가족은 원래 아주 사이좋은 변이지만(√ 사이좋은 편이지만) 이 두 명 조카 덕택으로 더 사이좋게 되었다고 느낍니다. (일본)
- (13) 하지만 아무리 즐겨 쓴다손 치도라도(√ 즐겨 쓴다손 치더라도) 사자성어의 한자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쓰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히 옛날부터 내려온 언어의 산물을 무시하는 것 생각한다. (일본)

(8)과 (13)은 표기법 오류의 예이다. 맞춤법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로 음운적 영향, 즉 발음 습관이 그대로 쓰기에 전이되어 나타난 표기 오류가 주를 이루었다. (8)에서 (10)은 발음상의 오류가 철자 오류로 이어진 경우이다. (11)과 (12)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발화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음, 격음, 경음의 변별 문제, (13)은 /ㄱ/와 /ㄴ/ 모음의 변별 문제가 쓰기에 전이되어 나타난 오류로 파악되었다.

- (14) 만약에 반대로 은행원이나 승무원이 다 자기 개성에 위해(√ 을 위해) 갖가지 옷을 그냥 입고 출근하면 우선 직원들도 지금 분명히 일하는 시간이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없고 산만하게 되기 쉽다. (중국)
- (15) 저는 제 부모님과도 별로 세대 차이를 느낀 것이 없었어요(√ 느낀 적이 없어요). (일본)
- (16) 나 같은 경우는 외국에 살고 있으니 부모님이나 만날 수 못하는(√ 만날 수 없는) 사람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근교 보고나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텔넷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되고 있다. (일본)

반면, (14)에서 (15)는 형태적인 변형이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문법적 언어의 기본적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발생한 오형태 오류의 예이다.

(14)는 선행 연결어에 나타난 대치 오류의 예로 선행 연결어가 조사인 경우로 ‘-을 위해’가 ‘에 위해’로 조사 ‘을’ 대신 ‘에’를 사용하여 오류로 판정되었다. (15)은 중심어 또는 문법적 언어 구성 전체에 걸쳐 나타난 대치 오류의 예로 ‘-ㄴ 적이 없다’를 ‘-ㄴ 것이 없다’와 같은 형태로 쓰면서 중심어인 ‘적’이 ‘것’으로 바뀐 경우이다. 이 오류는 ‘-는 일도 많다’를 ‘-는 것도 많다’, ‘-는 경우가 있다’를 ‘-는 것도 있다’와 같이 ‘일’, ‘경우’, ‘적’을 모두 ‘것’으로 대치 사용한 유사 형태의 오류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16)은 후행 연결어에 나타난 대치 오류의 예로 ‘-ㄴ 수 없다’를 ‘-ㄴ 수 못하다’로 바꾸어 쓴 경우이다<sup>10)</sup>.

- (17) 말이라는 것은 인간에 문화생활, 사회생활에 속에서(√ 속에서) 나왔다. (일본)
- (18) 시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적으면 너무 후회할까 봐 해서요(√ 후회할까 해서요/후회할까 봐서요). (일본)

10) 문법적 언어의 기본 구성을 ‘선행 연결어+중심어+후행 연결어’로 볼 때 ‘을 위해서’는 선행 연결어인 조사 ‘을’, 중심어를 이루는 용언 ‘위하다’, 후행 연결어인 연결어미 ‘어서’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문법적 언어 ‘을 위해서’의 ‘위해서’는 중심어와 후행 연결어의 합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을 위해서’와 같은 용언 구성이 용언의 굵은 꼴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위해서’를 분석하지 않고 중심어로 보았다.

(17)에서 (18)은 첨가 오류의 예로 선행 연결어와 후행 연결어 부분에 오류의 범위가 분포되었다. (17)은 선행 연결어에 나타난 첨가 오류의 예로 선행 연결어가 없이 선행 명사와 직접 결합하는 ‘-속에서’에 조사 ‘에’를 첨가 사용한 경우이다. (18)은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르까 해서요’에 ‘보다’가 첨가된 경우로 ‘-르까 하다’와 ‘-르까 보다’ 두 항목의 형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중첩 사용하여 발생한 오류로 간주하였다.

- (19) 월드컵 같은 국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개고기 문제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듣고 있는 비판은 초연하고 계몽시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러시아)
- (20) 그리고 기쁜 오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으로 온 후 일본의 가족이나 학교 친구들이 가끔 놀러 왔는데 한국문화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된 사람이 많이 있었다. (일본)
- (21) 그때는 영어를 쓰면서 일이 했기 때문(√ 때문에) 영어는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전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19)에서 (21)은 누락 오류의 예로 선행 연결어, 중심어, 후행 연결어 모두에 오류가 분포하였다. (19)는 선행 연결어에 나타난 누락 오류의 예로 ‘-에 대하여’의 선행 조사 ‘에’가 누락된 경우이다. (20)은 ‘-르 수 있다’와 ‘-르지 모르다’의 복합형으로 후행하는 ‘-르지 모르다’의 중심어인 동사 ‘모르다’가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행 연결어인 관형형 연결어미의 사용 형태도 바르지 않다. 중심어 누락 오류는 사실상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는 학습자가 발화하고자 했던 목표 항목을 짐작하기 어렵고, 대치, 첨가 오류에 비해 문법적 언어의 형태적 고정성의 손상 정도도 크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22)는 후행 연결어에 나타난 누락 오류의 예로 ‘-기 때문에’의 후행 조사 ‘에’가 빠져 오류로 분류된 것이다.

#### IV.2. 선·후행 결합어의 속성에 따른 형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

선·후행 결합어의 속성에 따른 형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는 주로 선행 결합어와 후행 결합어의 속성에 따라 선행 연결어미 또는 후행 연결어미의 활용형이 부분적으로 교체되는 문법적 언어의 형태적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 일으키는 오류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단순 형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의 대부분이 문법적 언어의 형태적 고정성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오형태 오류였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이 유형의



오류 역시 표면 전략에 따라 대치, 첨가, 누락 오류로 다양한 유형 분포를 나타냈다.

- (22) 그래서 언어생활이 새로운 방향으로 갈 때는 재미있기 위해(√ 재미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
- (23) 많은 종교에 관해(√ 종교에 관한) 역사를 읽으면 사람들이 종교를 왜 필요하는지 여러 결론을 내릴 수 있을듯하면서도 잘 살피면 종교에 담겨있는 힘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 (24) 저는 인간에 있어서(√ 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

(22)에서 (23)은 선·후행 결합어의 속성에 따른 형태 지식 부족으로 인한 대치 오류의 예이다. 세부 원인에 따라 선 후행 연결어의 품사, 선행 결합어의 의미 자질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문법적 언어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대치 오류의 형태를 띠었다. (22)는 선행 결합어의 품사에 따른 문법적 언어의 형태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 일으킨 대치 오류이다. 선행 결합어가 동사일 경우는 '-기 위해', 명사일 경우에는 '-를 위해'와 결합하여 '어떤 행동의 목적'이라는 의미 기능을 하는데, 형용사 '재미있다'에 '-기 위해'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동사와 결합하여 '진행', '과정', '방법', '목표'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기능하는 '-기 위해'의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과 함께 '재미있다' 대신 명사 '재미'+조사라는 비교적 간단한 통사 규칙을 적용하는 전략 사용 능력의 부족이 오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23)은 후행 결합어의 품사에 따라 달라지는 문법적 언어의 형태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 일으킨 대치 오류이다. 피수식어가 '역사'로 '에 관한'이 쓰여야 하는데 '-에 관해'를 사용하였다. (23)과 (24)가 선·후행 연결어의 형태적 속성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대치 오류라면, (24)는 선행 결합어의 의미적 속성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대치 오류이다. '~를 중심으로 하여 생각할 때에'라는 의미 기능을 가지는 문법적 언어 '-에 있어서'와 결합하는 선행 명사의 의미자질이 [인간]의 특성을 가짐으로 해서 '-에게 있어서'가 쓰여야 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의 오류는 '-에 있어서'가 선행 결합 명사의 의미자질에 따라 형태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만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조사 '에'와 '에게'의 용법에 관한 지식을 활용해 정확한 형태로 사용 가능했을 항목이다.

- (25) 하지만 아마 그것은 너무 힘들을 것 같다고(√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 (26)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강해진다는 법(√ 강해지는 법), 나도 한국에서 할머니 집 따스한 햇살, 봄 땅 냄새를 얼마나 그리워하든지 모른다. (러시아)

(25)에서 (27)은 선·후행 결합어의 속성에 따른 형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첨가 오류의 예이다. 이들은 선행 결합어로 쓰인 용언의 활용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와 선행 결합어와의 결합 정보 부족으로 인한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25)는 ‘ㄹ’ 불규칙 동사의 활용 지식 부족으로 관형형 연결어미 ‘을’을 중첩 사용하여 발생한 오류이다. 이러한 유형의 오류는 ‘힘들다’ 외에도 ‘알다’, ‘놀다’, ‘풀다’ 와 같은 ‘ㄹ’ 불규칙 동사에서 11회로 높은 오류 중복도를 보였으며, 그 밖에 ‘짓다’와 같은 ‘ㅅ’ 불규칙 동사, ‘듣다’와 같은 ‘ㄷ’ 불규칙 동사 등에서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한국어 학습 초기 단계부터 학습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는 부분이 고급 단계가 되어서도 정확한 사용으로의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6)은 ‘일이 으레 그렇게 됨’의 의미를 나타내는 ‘-는 법이다’를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지는 연결부에서 수사적 효과를 위해 ‘-는 법’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는 법이다’는 선행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합 형태를 숙지하지 못해 종결어미 ‘다’를 포함한 동사의 기본형 전체와 결합, 사용하였다.

### IV.3. 문장 또는 담화 차원의 통사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

문장 또는 담화 차원의 통사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는 시제, 주어, 어미에 대한 선택 제약과 함께 문장의 배열 규칙 또는 구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발생한 오류를 말한다. 여기서 ‘문장 또는 담화 차원’이란 오류 영역을 문법적 언어 항목 자체 또는 선행 결합어와의 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문장 또는 문장 단위를 넘어선 담화 맥락 전체로 삼았음을 뜻한다. 문장 또는 담화 차원의 통사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는 문장의 시제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특정 문법적 언어의 속성을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형태적 오류와 개별 문법적 언어의 형태적, 통사적, 의미 기능적 속성 또는 구성 어휘 요소의 의미자질과 관련한 통사적 오류로 나타났다. 이것은 표면 전략에 따른 대치 오류와 누락 오류의 두 가지 형태를 보였다.

(27)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르게 하고 싶은 일이 찾을 수 없고 혼자 하는 일 아니라 사람 모여서 하는 일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만 할 수가 없다. (일본)

(28) 제 경우에는 계획을 세운 후에 계획대로 할 수 없거나 계획대로 하려고 해도 하기가 힘들고 싫어할 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쌓이는 것 같습니다). (일본)

(29) 저는 한국에 온지 거의 10개워 뉘다(√ 뉘다). (방글라데시)

(27)에서 (29)는 문장 또는 담화 차원의 통사 정보 부족으로 인한 대치 오류의 예이다. 이것은 문장 구조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와 문장의 시제에 따른 형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 문법적 언어 개별 항목의 속성에 따른 사용 제약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로 나타났다.

(27)은 문장 구조를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로 ‘-기 때문에’를 ‘때문에’로 대치 사용한 경우이다<sup>11)</sup>. 형태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명사+때문에’라는 결합 규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내적인 문장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장은 크게 ‘그렇지만 ...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와 ‘사람 모여서 ... 그만 할 수가 없다’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 중 후행절은 다시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다’와 ‘지금 그만 할 수 없다’가 이유의 연결어미 ‘-기 때문에’로 이어진 복문 구조를 갖는다. (28)은 문장 또는 담화 맥락상에서의 시제 불일치로 인한 대치 오류이다. 담화 맥락과 문장 간의 시제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예로 제시되고 있는 오류문만 보았을 때에는 정문이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글의 맥락 전체를 보았을 때는 비문이 된다.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ㄴ 것 같습니다’ 대신 현재 사실 또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는 것 같습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이 유형의 오류는 형태적 교정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대치 오류와 선·후행 결합어의 속성에 따른 형태적 지식 부족으로 인한 대치 오류와는 또 다른 양상을 띤다. (27)의 오류가 비교적 단순한 형태 정보 또는 2차적인 선행 결합어에 대한 정보의 빈칸을 메움으로써 개선될 수 있는 것인 반면, (28)의 경우는 시제를 포함한 문장 또는 담화 맥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없이는 교정되기 어려운 다소 복잡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29)는 ‘동작이 완료된 상태가 시간적으로 얼마 지났음’의 의미 기능을 하는 ‘-ㄴ 지’는 ‘시간의 경과’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뒤에 구체적인 시간이나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이 온다. 또한 의미 속성상 후행하는 내용은 완료 시제를 나타낸다. 예문 (32기)은 바로 ‘-ㄴ 지’의 의미 기능적 속성을 파악하지 못해 일으킨 오류이다.

(30) 그래서 자연환경을 지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일본)

11) (20)의 오류는 오류 범위를 선·후행 연결어와 문법적 언어에 한정할 경우 문법적 언어를 구성하는 선행 연결어 누락 오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예문 기과 ㄴ에서 학습자가 ‘명사+때문에’, ‘명사+뿐만 아니라’의 용법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한다면, 이것을 단지 ‘기 때문에’와 ‘ㄴ뿐만 아니라’의 선행 연결어인 ‘기’와 ‘ㄴ’의 누락 오류로 볼 수는 없다.

(30)은 문장 또는 담화 차원의 통사 정보 부족으로 인한 첨가 오류의 예이다. 문장 구조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와 문법적 언어의 의미적 속성에 의한 시제 오류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오류문은 ‘그래서 우리는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또는 ‘우리는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와 같이 수정 가능한 문장으로 문장 구조 지식 부족으로 인해 문법적 언어의 통사적 결합성이 파괴된 예이다. 1차적으로 ‘-리 수밖에 없다’의 형태적 고정성만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오류이다.

(31)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단체, 회사, 개인의 정보를 조속한 시일 안에 홍보할 수 뿐만 아니라(√ 홍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아주 저렴하다.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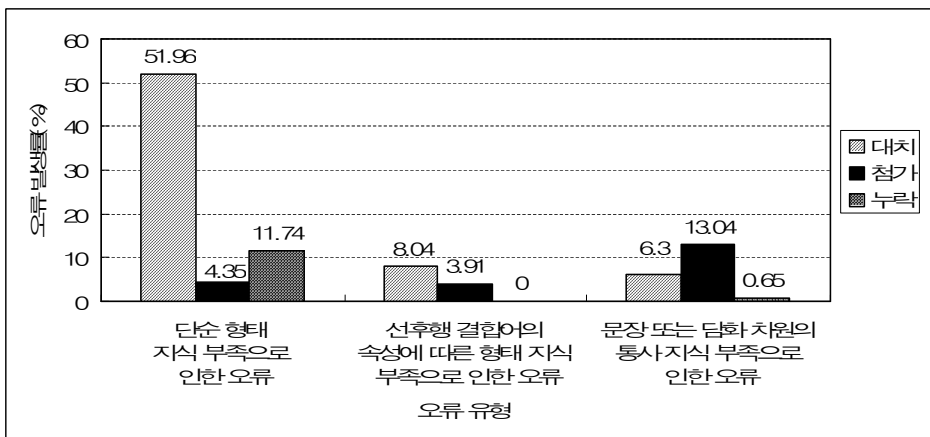
(32) 왜냐하면 컴퓨터와 인터넷 때문에 할 일을 더 빨리 할 수 있다(√ 있기 때문이다). (미국)

(31)은 문장 또는 담화 차원의 통사 정보 부족으로 인한 문법적 언어 구성 요소의 부분적 누락 오류이다. 전체 10개의 오류 항목 중 6개가 이처럼 선행절의 서술어에 종결형의 문법적 언어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연결형의 문법적 언어가 선행절과 후행절을 이어주는 복문 구조에서 나타났다. 즉, 각각 종결형과 연결형으로 실현되는 두 개 이상의 문법적 언어 항목이 중첩 사용되면서 발생한 오류이다. 오류문은 ‘-리 수 있다’와 ‘-리 뿐만 아니라’가 중첩되면서 선행하는 ‘-리 수 있다’의 ‘있다’가 누락되어 비문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이다. 문장에 나타난 오류 양상만으로 그 원인을 짐작하기 어렵지만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라는 선행절과 ‘비용도 아주 저렴하다’라는 후행절이 연결어미 기능을 하는 ‘-리 뿐만 아니라’에 의해 이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였다면 오류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32)는 문장의 통사적, 의미적 호응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오류의 예이다. 오류문은 부사 ‘왜냐하면’과 호응을 이루어 ‘이유’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기 때문이다’ 대신 ‘-리 수 있다’가 대치 사용되고 있다.

#### IV.4.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지금까지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적 언어 사용에 나타난 형태·통사적 오류를 발생 원인과 표면 전략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림 1>은 형태·통사적 오류 분석 결과에 따른 유형별 오류 발생률을 나타낸 것이다. 형태·통사적 오류는 단순 형태 지식 부족

으로 인한 오류 67.90%, 선·후행 결합어의 속성에 따른 형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 약 11.93%, 문장 또는 담화 차원의 통사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 19.96%로 오류 발생 원인에 따른 오류의 유형별 분포 비율에서 단순 형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 전략에 따른 오류의 유형별 분포에서는 대치 오류 76.36%, 첨가 오류 6.39%, 누락 오류 17.25%로, 대치 오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1> 형태·통사적 오류의 유형별 오류 발생률

형태·통사적 오류는 높은 오류율만큼 각 유형이 포함하는 구체적인 오류의 원인이 다양했다. 단순 형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의 경우 철자 오류를 포함한 오형태 오류로 전체 오류의 35.37%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가 문법적 언어 사용에서 형태·통사적 결합 규칙이나 선택 제약이 아닌 문법적 언어의 형태 자체를 인지하는 것에 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문법적 언어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달리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없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내재화 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연습, 사용 과정이 필요하며 거기에 상응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항목으로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유창한 언어 사용을 돕더라도 덩어리표현이라는 사실이 학습과정마저 자동화되어 쉽게 습득으로 이어지는 저난이도의 항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적으로 문법적 언어의 선행 연결어 성분인 조사나 어미의 부분적 대치로 인한 오류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자가 문법적 언어를 하나의 단위가 아닌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의 합으로써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한편, 선·후행 결합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오류와 문장 또는 담화 차원의 통사 정보 부족으로 인한 오류는 상대적으로 낮은 오류율을 보였다. 그러나 세부 오류 원인에 따른 오류 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오류 양상도 복잡했다.

선·후행 결합어의 속성에 따른 형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는 문법적 연어와 결합하는 어휘의 품사와 의미자질에 따른 변화 형태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와 용언의 활용, 결합 형태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로 나타났으며 총 55회의 빈도를 기록했다. 선·후행 결합어의 품사에 따른 형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는 24회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용언의 유형에 따른 형태의 변화를 구분하지 못한 경우로 문법적 연어의 선행 연결어를 구성하고 있는 관형형 어미의 대치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교사들이 새로운 문법적 연어 항목을 제시할 때에 문법적 연어의 선행 연결어인 관형형 어미를 이미 학습한 것,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미 설명에 치중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해당 문형 안에서의 형태·통사적 결합형을 체계화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문법적 연어는 한국어 모어 화자인 교사의 인지체계 안에서 하나의 언어사용 단위로 자리하고 있는 한편, 실제 사용단계에서 일어나는 숙달된 분절 프로세스에 의한 분석 단계 또한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관형형 어미를 포함한 문법적 연어 항목을 하나의 의미기능 단위로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교사 자신이 이미 형태·통사적으로 관형형 어미를 포함한 복합 구성요소 간의 함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2)</sup>. 따라서 한국어의 구조와 규칙 체계가 완전히 체화되지 않은 학습자에게 여전히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류 빈도 17회로 두 번째로 높은 오류율을 보인 선행 결합 용언의 활용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는 초급 단계에서 학습한 용언의 활용, 특히 불규칙 용언의 활용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일으킨 오류이다. 이 유형의 오류 역시 학습자들이 초급 단계의 학습 내용을 내재화하지 못함으로써 고급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다른 오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문장 또는 담화 차원의 통사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는 문장의 시제에 따른 형태 지식, 문장의 구성 및 구조 지식, 문법적 연어 개별 항목의 선택 제약 지식 부족으로

12) 이는 언어습득 측면에서 제2언어 학습자에게 최소한의 학습으로 최대한의 창조적 발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이점을 주기도 하지만, 한국어 구조에 대한 체계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학습자에게 있어서는 사용 과정에서 형태·통사적 오류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기도 한다.

인한 오류로 나타났으며 총 92회를 차지했다. 이 중 60회로 가장 큰 오류의 원인으로 드러난 문장의 구조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는 복문 구조에서 주술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문장의 호응 관계를 깨뜨린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오류는 오류 범위와 정도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의미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단기적인 오류 처방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초급 단계부터 단계적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시제 제약, 어미 제약과 같은 문법적 연어 개별 항목의 선택 제약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는 문법적 연어 사용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으로 학습자에게 적지 않은 인지적 부담을 줄 수 있어 많은 오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3회로 빈도수는 매우 낮았다.

〈표 4〉는 이상에서 논의한 형태·통사적 오류의 세부 원인별 오류 빈도와 오류 발생률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형태·통사적 오류의 세부 원인별 오류 빈도 및 오류율

오류의 유형	오류의 세부 원인	표면 전략 유형	오류빈도 (회)	오류발생률 (%)
단순 형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	단순 철자 오류	대치	82	17.83
	오형태 오류	대치, 첨가, 누락	231	50.22
선·후행 결합어의 속성에 따른 형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	선·후행 결합어의 품사에 따른 형태 지식 부족	대치, 첨가	24	5.22
	선행 결합어의 의미 자질에 따른 형태 지식 부족	대치	2	0.43
	선행 결합어와의 결합 형태에 대한 지식 부족	대치, 첨가	12	2.61
	선행 결합 용언의 활용 지식 부족	대치, 첨가	17	3.70
문장 또는 담화 차원의 통사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	문장의 시제에 따른 형태 지식 부족	대치	29	6.30
	문장의 구성 및 구조 지식 부족	대치, 누락, 첨가	60	13.04
	문법적 연어 개별 항목의 선택 제약 지식 부족	첨가, 대치	3	0.65
합 계			460	100.00

## V. 결론

지금까지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적 언어 오류의 세 가지 유형 중 형태·통사적 오류를 오류 원인과 표면 전략에 따라 유형화한 후, 학습자의 언어 사용 체계와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학습자의 언어 사용에 문법적 언어 사용 오류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문법적 언어 사용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형태 인지와 통사적 결합 단계에서 고빈도의 오류를 보였다. 둘째, 학습자들이 어휘-문법 단위의 덩어리표현인 문법적 언어를 발달 단계에 있는 학습자 자신의 불완전한 한국어 구조 지식에 기대어 분석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였다. 셋째, 오류의 상당 부분이 초급 단계에서 학습한 조사와 어미 등의 범주접근적 문법항목에 대한 지식이 내재화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상의 사실들로부터 문법적 언어 오류의 원인이 학습자 내적인 요인 외에 상당 부분이 한국어 문법 교수 방법이나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제시 단계에서 제2언어 학습자로서 한국어 문법 체계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인지적 부담과 습득 과정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으며, 연습 단계에서 문법적 언어를 하나의 덩어리표현으로 자동화하여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오류의 원인은 한국어 교육문법의 비체계성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어 교재 속에 혼재되어 있는 다양한 언어학적 층위의 학습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위계화의 과정 없이 과제활동 수행에 필요한 개별 항목의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일회적으로 제시해 왔던 기존의 문법 교수 체계가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이것이 한국어의 문법 체계를 학습자의 인지체계 안에 구조화하는 데에 방해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효과적인 문법적 언어 교수, 더 나아가서 성공적인 문법 교수를 위한 첫 번째 과제가 한국어 문법 체계 정립임을 실감할 수 있다. 그간 끊임없이 이어져 온 한국어 문법 체계에 대한 논의는 학문적 정체성 차원의 거시적인 논의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정확성을 높이고 한국어 구조 체계의 내재화를 촉진함으로써 유창성을 겸비한 의사소통능력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교수 방안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거시적 문법 체계 위에서 그 다음 과제로 형태·통사적 특징과 의미기능, 화용적 기능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개별 항목에



대한 효율적 교수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본고는 국어학적 문법 범주체계를 기준으로 분석적 관점에서 학습자의 오류를 보아 왔던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 관점에서 어휘접근적 문형표현인 문법적 언어를 독립된 언어사용 단위로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오류 연구에서 포착하지 못한 한국어 문법 체계와 학습자 오류간의 상호 관련성을 의사소통적 한국어 문법 교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는 향후 어휘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점의 한국어 문법 교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 결과 산출된 오류 빈도와 오류 유형 자료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입장에서 현장의 교사에 의해 경험적으로 선정되어 왔던 문법적 언어 교수의 내용 자료를 구성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오류 분석 대상 자료가 문어 자료에 한정되어 구어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유형의 오류를 포착하지 못했고, 오류를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연구자의 직관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분류의 체계성이 다소 부족했다는 한계로 인한 빈칸은 후속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강현화, 「체언+용언」 끝의 연어 구성에 대한 연구, 사전편찬학 연구 8, 한국문화사, 1998.
- \_\_\_\_\_,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형 등급화를 위한 문형 유형 연구-한국어 교재 및 사전 분석을 바탕으로”, 2006 응용언어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요지, 응용언어학회, 2006.
-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김유미, “한국어 교육에서의 패턴 문법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22차 추계학술대회 발표 요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4.
- \_\_\_\_\_, 「한국어 교육에서 자동 문형 검사기 설계를 위한 문형 추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김유정,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오류분석의 기준 연구”, 『한국어교육』16-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5.
- 김정은·이소영,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표준 문법-조사, 어미,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19, 이중언어학회, 2001.
- 김진해, 「국어 연어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노지니, 「한국어 교육을 위한 추측의 통어적 문법소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방성원, “한국어 교육용 문법 용어 표준화 방안”, 『한국어교육』 1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2.
- 백봉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 석주연·안경화, 한국어 학습자 표현 오류분석의 몇 가지 문제, 『한국어교육』 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 이미혜,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표현 항목’ 설정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 13-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2.
- 이은경, “명사를 중심어로 하는 문법적 연어 구성”, 이중언어학회 제12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요지, 이중언어학회, 2005a.

- \_\_\_\_\_, “용언에 의한 문법적 언어”, 『우리말연구 서른아홉마당』, 태학사, 2005b.
- 이정희,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박이정, 2003.
- 이종은, 「어휘적 접근법을 통한 한국어 의존용언 교육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이희자, “현대 국어 관용구의 결합 관계 고찰”, 『대동문화연구』 3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95.
- 이희자·이종희,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2001.
- 임근석, 「현대 국어의 어휘적 언어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임홍빈, “한국어 연어의 개념과 그 통사/의미적 성격”, 『국어학』 39, 국어학회, 2001.
- 최윤곤,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구문표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홍재성, “어휘 함수에 의한 한국어 의미 기술과 사전 편찬”, 제2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5.
- Corder, 『Idiosyncratic Dialects and Error Analysis』, New Frontier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1967.
- Corder,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Oxford Press, 1981.
- Dave Willis, 『Rules, Patterns and Wor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Diane Larsen-Freeman and Michael H. Long, An Introduction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Longman, 1991.
- Diane Larsen-Freeman, “Teaching Grammar”, Celce-Murica,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New York Newbury House, 2001.
- Lennon, P., Error: Some Problems of Definition, Identification, and Distinction, Applied Linguistics Vol. 21 No. 2. pp. 180-196, 1991.
- Michael Lewis, 『The Lexical Approach』,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 1993.
- 김성환 율김, 『어휘접근법과 영어교육-영어교수의 현상과 진보』, 한국문화사, 2002.

Michael Stubbs, 『Words and phrases: corpus studies of lexical semantics』,  
Blackwell Publishing, 2002.

Nattinger, J. and DeCarrico, J., 『Lexical Phrases and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Abstract]

## Error Analysis in Grammatical Collocation of KFL Learners

– Focusing on Learner's Corpus and Advanced  
Korean Learners' Composition –

Hong Hye-Ran

This study is one of the ground work to construct the necessary curricular of teaching grammar. Thus, this paper studies the errors appeared in grammatical collocation, which is one of category-based classification of patterns, with the viewpoint of communicative grammar instruction and tries to make ground data to find more efficient grammar instruction.

A Korean textbook includes lexical function items such as single vocabularies, lexical collocation, idioms and proverbs, lexically approached grammar items, specific verb's frame structure. It also includes frequently used sentences being used by people of Korean mother tongue and category-based classification of patterns that shows medium characteristics of the two factors composing complex factors of lexis and grammar. The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s of textbooks include more category-based classification of patterns. It is resulted from the fact that the category-based classification of patterns that is composed of chunk units is more efficient in learning a language than lexically approached grammatical items.

This paper studies errors in grammatical collocation that is one of category-based classification of patterns. But it regards the grammatical collocation of vocabulary-grammar complex structure as a unit to

differentiate from the existing research method that has seen the learners errors with the analytical viewpoint of grammatical range system. It found that Korean learners were inclined to use the grammatical collocation, which is chunk of lexico-grammar complex structure, analytically relying on their own incomplete Korean structural knowledge. It found that one of main reasons was unsystematic Korean educational grammar and instruction.

This paper can provide Korean learners with realistic materials for efficient grammar instruction. It is expected that the accumulated experienced materials could be used as basic materials to set up Korean educational grammar system with the new viewpoint based on category-based approach.

주제어 : 문법적 연어(grammatical collocation),  
문법 교육(teaching grammar),  
오류분석(error analysis),  
어휘-문법(lexico-grammar)